‘순창의 맛’ 세계에 알렸다

군, 외국인과 함께한 ‘장류벨트 미식관광’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순창군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장 담그기’ 문화를 중심으로 기획한 장류벨트 미식관광 프로그램이 외국인 참가자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순창군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장 담그기’ 문화를 중심으로 기획한 장류벨트 미식관광 프로그램이 외국인 참가자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1차,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2차에 걸쳐 2박 3일 일정으로 두 차례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 장류문화와 지역 미식 자원, 생활문화 체험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순창 장문화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에서 방문한 외국인 참가자들은 순창고추장 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를 비롯해 벚꽃과 수선화가 어우러진 경천과 양지천 일대를 둘러보며 한국 발효문화의 깊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장류벨트 프로그램의 핵심 일정인 장 담그기 체험에서는 대한민국 식품 명인의 지도 아래 메주가루와 소금, 조청 등 전통 재료를 직접 배합하며 수천 년 이어져 온 한국 발효문화의 정수를 몸소 익혔다. 이어 발효테마파크에서 진행된 막걸리 빚기 체험 역시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 밖에도 순창고추장불고기와 순창 삼합 등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을 맛보며 장류를 기반으로 형성된 순창만의 미식 문화를 다양하게 경험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으며, 전통 농기구 사용 체험도 진행돼 단순한 음식 체험을 넘어 한국적인 삶의 방식과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순창군은 앞으로 장류를 중심으로 한 체험형 미식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외국인의 시각에서 순창의 맛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글로벌 관광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보건의료체계 재정비

권역별 순회진료 ·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등 본격 추진

남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의과 공중보건의 수가 의대 내 여학생 비율 상승, 현역 입대 선호 현상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약 44% 급감하고, 특히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필수의료 접근성 저하 등 공공보건의료 공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며,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난 2018년부터 부지 확보 및 관련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 법률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단 없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권역별 순회진료와 △필수의료인력 지원사업에 더해, 최근 핵심 대안으로 떠오른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의 핵심은 숙련된 의료 인력의 현장 복귀로, 남원시는 41년 경력의 전북대학교 진영호 교수를 영입해 지역주민들에게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베테랑 전문의의 고품격 의료 서비스를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시는 진영호 교수의 전문성을 진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민대상 ‘응급처치 교육’ 시 시니어 의사인 진 교수를 전문 강사로 투입하여 실무 중심의 생생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내 13개 보건지소(운봉, 인월 의약분업지역 제외)를 권역별로 나누어 의과와 한의과를 순회진료 체계로 전환하였고, 스마트경로당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을 확대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가가호호 이동장터’ 인기 폭발

임실군, 농촌 소외지역 대상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임실군이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가가호호 이동장터’가 단순한 물품 판매를 넘어 생활 밀착형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오지 마을 주민들의 든든한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가호호 이동장터’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상점이 사라진 농촌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모델이다.

최근에는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칼갈이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임실군과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임실시니어클럽의 협업으로 운영된다. 군은 차량과 운영을 지원하고, 시니어클럽은 물품 관리와 운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효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특히, 마을 이장과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전 수요조사와 안내방송에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운영체계를 갖춰 이동장터는 단순한 상점을 넘어 이웃간 소통의 장이자 지역 공동체를 잇는 핵심 복지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대한민국 축제 엑스포서 ‘춘향제’ 홍보

남원시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축제 엑스포’에 참가해 우리나라 대표 축제인 ‘제96회 춘향제’와 남원의 관광 매력을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다.

가장 주목받은 프로그램은 ‘변사또를 이겨라’ 이벤트로, 사또 복장을 한 진행자가 코믹하고 익살스러운 멘트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으며, 이를 자연스럽게 춘향제 주요 프로그램 홍보로 연결, 남원시는 이러한 창의적인 기획력을 인정받아 이번 엑스포에서 관광홍보 마케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시는 최근 트렌드인 ‘관광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 가입 이벤트를 병행, 신규 가입자에게 다양한 현장 혜택과 홍보 기념품을 제공해 관람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며, 향후 남원의 관광 정보와 축제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아울러 엑스포 기간 중 여행사 및 관광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B2B 상담 테이블을 운영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등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발판도 마련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햇빛소득마을’ 주민설명회 개최

순창군은 지난 20일 군민예술회관에서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마을 주민, 이장, 협동조합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사업 개요를 비롯해 태양광 발전사업 구조, 수익 배분 방식, 참여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행정리 단위 협동조합이 300kW 이상 1,000kW 이하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소득으로 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이다.

특히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85% 융자 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 최대 90% 지원 등 파격적인 재정 지원책을 제시해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 총회 승인이 필요하며, 발생한 수익은 주민 복지사업, 지역사회 환원, 주민 배분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고추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

임실군이 고추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해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안정적인 영농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 고추 농자재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4억2,000만원 규모로, 고추 재배에 필요한 멀칭비닐과 지주대 등 필수 자재를 지원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멀칭비닐을 중심으로 자재 공급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농협을 통해 농가에 순차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행정력 집중

남원시는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를 2026년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용한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정리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특히 고액 체납자 관리 기준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가택수색, 출국금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상속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가상자산 및 급여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 기법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다.

특히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운영, 공무원과 실태조사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관리단은 5월부터 8월까지 100만 원 미만 체납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 방문 면담을 병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 열어

순창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효율적인 세입관리 강화를 위해 21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대통령 지시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운영 방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체납관리단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 징수활동의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체납관리단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관리단 위촉장 수여, 운영계획 설명 및 직무교육 등이 함께 진행됐다.

순창군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구성되어 2026. 4월~8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